

기억, 비완형보절의 사건/사실 해석, 그리고 다면어 Memories, Event/Fact interpretation of non-finite Complements, and Multi-faceted word.

김태인

한남대학교 국어국문창작학과
zestti@hanmail.net

1. 서론

- (1) ㄱ. 나는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한 것을 무시했다.
 ㄴ. 나는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무시했다.
- (2) ㄱ. 운동장에서 단우가 연우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ㄴ. 운동장에서 단우가 연우를 때린다는 소리를 들었다.

본고의 주된 논의는 (1)과 (2)에서 보인 예문과 관련된 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과 (2)에서 밑줄 친 부분은 분포적으로 명사의 성격을 보이는 명사어(nominals)라고 하겠다.¹⁾ 특히 (1)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ㄴ 것’ 자체가 현대 한국어에서 하나의 보절자(complementizer)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의 밑줄 친 부분은 명사화 절(nominalized clause), 명사화 구문(nominalization/nominalization-based construction)이라고도 할 수 있다.²⁾

- (3) ㄱ.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한 것
 ㄴ.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했다는 것
- (4) ㄱ. 단우가 연우를 때리는 소리
 ㄴ. 단우가 연우를 때린다는 소리

다시 (1)과 (2)에서 밑줄 쳤던 명사어만을 뽑아 (3)과 (4)에 넣었다. 그리고 수식을 받는 핵어 명사를 제외한 부분에 다시 밑줄을 쳤다. 이 (3)과 (4)의 밑줄 친 부분이 한국어 학계에서는 남기심(1973) 이후로 불구보문(deformed sentential complement)과 완형보문(undeformed sentential complement)으로 통용되던 것이다. 김태인(2019)에서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첫째, 보문이 아닌 보절이라는 용어를 썼다.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처럼 보절도 내포절이기 때문이다. ‘문(文)’이라고 하는 용어는 의문문, 명령문, 평서문 등과 같이 하나의 완결된 단위가 성립될 때 사용된다. 보문이라는 용어보다는 보절이라는 용어가 학문 내적

1) 품사를 다룰 때 우리는 부사(adverb), 명사(noun) 등을 따진다. 문장 성분, 곧 문장 내에서 기능을 따질 때에는 부사어(adverbials)라고 하듯이 명사어(nominals)가 좋아 보인다. Lyons(1977) 《Semantics》를 번역한 강범모(2011)에서도 nominal의 번역어로 ‘명사어’를 채택하고 있다.

2) 명사화(nominalization)는 명사적 표현(nominal expressions)을 도출하는 과정(Yap & Grunow-Hårsta 2011: 3)이나, ‘무언가를 명사’로 바꾸는 것(Comrie & Thomson 2007: 334)이라고 할 수 있다.

정합성을 충족시킨다.

한편 한국어 학계에서는 '보절'을 '내용절'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편견이 있었다(문숙영 2017: 69-70). 곧 '연우가 집에 갔다는 이야기'에서 '연우가 집에 갔다는'이 해당 '이야기'의 내용이고 이것이 보절이라는 이해이다. 이러한 보절 이해는 다소 협소하다. Dixon(2010: 370)에서는 보절을 '다른 절의 논항 자리를 채우는 절'이라고 설명한다. 모문의 문장 성분이 되는 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절은 명사절, 부사절, 관형사절을 아우르는 상위 범주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1ㄱ)의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한 것'은 '나는 X를 무시하다' 틀을 가진 모문의 X에 해당하고, 이는 목적어로 기능하는 명사절이자 상위 범주인 보절에 포섭된다. 이때의 핵은 서술어인 '무시하다'가 된다. 한편 (3ㄱ)의 '김단우가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한'은 '나는 X 것을 무시하다' 틀을 가진 모문의 X에 해당하고 이는 관형어로 기능하는 관형사절이자 상위 범주인 보절에 포섭된다. 이때의 핵은 '것' 의존 명사가 될 것이다.

다른 수정은 불구보문을 비완형보절로 하자는 것이었다. '불구'라는 표현이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하자는 의미였다.³⁾

(2ㄱ)은 해석은 화자가 '단우가 연우를 때리는 물리적 소리'를 들은 것이다. 물리적 소리를 듣는 것의 거리적 한계로 인해 '단우가 연우를 때리는 일'과 그 소리를 듣는 화자의 일은 가까운 거리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⁴⁾ (2ㄴ)은 그런 동일 시간과 동일 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다. 곧 '단우가 연우를 때린다는 내용', 그러한 소식을 화자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이다. 이에 따라 비완형보절은 사건 해석을 가지고, 완형보절은 명제적 해석, 사실 해석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

(1ㄱ)과 (1ㄴ)의 해석도 평행하게 이루어진다. (1ㄱ)의 사건 해석은 발신자를 표시해주는 첨단 기술 덕분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단우는 술에 취해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나'는 그것을 받지 않고 무시해 버렸다. '전화' 사건과 '무시' 사건은 동일 공간과 동일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사건 해석이다. (1ㄴ)의 '전화' 사건과 '무시' 사건은 이러한 동일 공간/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난다. 곧 '나'는 김단우와 어떻게든 잘 지내보기 위해, 다소 무례했던, '나'에게 새벽 3시에 전화했다는 사실을 애써 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1ㄱ)은 사건 해석뿐만 아니라 사실 해석도 가질 수 있다. 중의적이라는 말이다.

본 논의에서는 인간의 기억을 이 사건 해석과 사실 해석과 결부시켜 보고자 한다. 뇌 과학 분야의 눈부신 성과로 인해 밝혀진 여러 사실 중에 하나는 인간의 기억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들이 언어로 인출될 때, 기억의 종류가 다르면 부호화되는 양상도 다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완형보절은 사건기억(일화기억, episodic memory)을 부호화하고, 완형보절은 의미기억(사실기억, semantic memory)을 부호화한다. 그리고 이는 사건 통합(event integration)의 정도와 연결된다.

3) 비완형보절은 '완형보절이 아님'이라는 의미로 '비-완형보절'로 분석된다. 지금 필자에게는 오히려 '미완-형보절'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해 보인다. 결국 남기심(1973)의 완형보문과 불구보문의 구분은 해당 보절이 시제와 상, 양태의 선문말어미나 종결어미까지 다 가질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문말어미나 종결어미를 결여해서 무엇인가 연결되지 않은, 곧 미완의 보절인 것이다. 다른 방법은 현대 유형론적 성과에 맞게 '정형보절'과 '비정형보절'로 하는 것이다. 이는 범언어적 연구 성과와 맞물려 통용될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용어 사용이라고 생각한다.

4) 곧 화자가 들은 일이 운동장이라면 단우가 연우를 때린 것은 동일한 운동장일 수도 혹은 운동장에서 이어진 창문이 열린 교실일 수 있다. 화자가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난 소리를 들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5) 사실은 명제의 하위 유형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화자에게 참으로 확정된 명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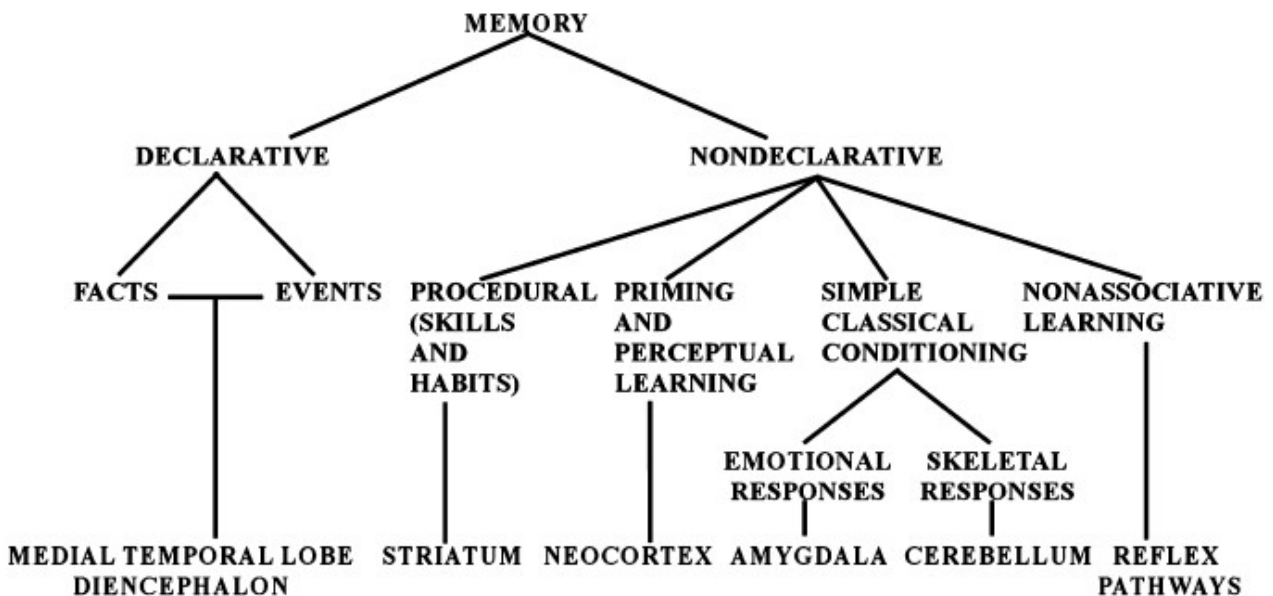
비완형보절과 완형보절의 유래는 완전히 상이하다. 공시적으로야 관형사절로 파악되지만 말이다. 이에 대해서도 다루어 본다. 마지막으로 (17)이 사건 해석과 사실 해석을 가지는 것을 환유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2. 기억들

Atkinson과 Shiffrin(1968)에서는 인간의 기억을 감각기억, 단기기억(short-term memory), 장기기억(long-term memory)으로 삼분화하였는데 이 논의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을 구분했다는 데에 있다. 후에 단기기억은 작업기억(WM: working memory)으로 치환되는데 이 정신적 작업 공간에서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이 가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Baddeley 1992). 인간은 살면서 끊임없이 감각하고 지각한다. 외부의 자극을 느끼는 것이 감각이라고 한다면 기억을 참조해 대상을 무엇인지 판별하고 범주화하는 것은 지각이라고 할 것이다. 감각하고 지각하는 모든 대상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감각과 지각된 것 중 일부 주의집중을 받은 정보는 작업기억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작업기억 영역에서는 외부의 감각과 장기기억 속의 정보들을 불러들여 말 그대로 작업을 한다. 이 영역에서 되뇌기(rehearsal)가 일어나고, 되뇌기로 처리된 정보들은 장기기억 속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장기기억 역시 하위 범주화가 가능하다. 이처럼 장기기억이 여러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기억체계이론(memory system theory)이다(이정모 외 2009: 193 참조). 장기기억의 하위 범주화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Squire(1993, 2004)의 구분이 널리 통용된다. Squire(2004: 173)의 도식을 그대로 보인다.

<표 1> Squire(2004: 173)의 장기기억의 분류



장기기억은 의식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서술기억(declarative memory)과 비서술기억(nondeclarative memory)으로 나뉜다. 비서술기억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기억의

영역이다. 종이 올리면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 이야기(고전적 조건화)나 뜨거운 것을 만지면 '앗, 뜨거워!' 하면서 손을 떼는 현상(비연합적 학습, 척수 반사), 비너를 보고는 곧장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오르는 현상(점화기억),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절차기억) 등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의식할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기억들을 비서술기억 혹은 암묵기억(implicit memory)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러 의식하여 언어로 기술해낼 수 있는 명시적인 기억들이 있다. 언어로 기술할 수 있다고 해서 서술기억이고 명시적이라고 하여 외현기억(explicit memory)라고 한다. 이 서술기억은 다시 일화기억(episodic memory)과 의미기억(semantic memory)로 나뉘는데 일화기억은 사건과 관련 있다고 하여 사건기억이라고도 하고 의미기억은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사실기억이라고도 한다.

눈치를 챌겠지만 본 논의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기억의 영역은 바로 일화기억과 의미기억의 구분이다. 이러한 구분은 Endel Tulving이라는 학자로부터 비롯했는데 이 두 기억의 차이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Tulving 1972, 1983, 1993 참조).

먼저 일화기억은 해마(hippocampus)를 중심으로 내측두엽에서 일어난다(박문호 2013: 489 참조). 이 기억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연관되는데 곧 회상록, 자서전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명동역 3번 출구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 민우를 만난 일 등이 일화기억인 것이다. 이 일화기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해당 사건에 공간적, 시간적 표지가 분류표로 달려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일화기억의 본질은 '출처기억(source memory), '회상(recollection)'이다(Squire & Kandel 2009, 전대호 역: 244).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거기서 그랬었지'라고 서술할 수 있는 기억인 것이다.⁶⁾ 그리고 이 기억의 모음이 결국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편 의미기억은 세상에 대한 지식이 명제의 형식으로 표상된 것이다(Tulving 1993: 67). 가령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이라는 질문의 답이라든지 'A와 B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에 해당한다. 이 의미기억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이 참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화기억과 의미기억이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삶은 감각과 지각의 연속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끊임없이 사건을 겪는다. 산책을 할 때 비둘기가 지금, 눈앞에서 '퍼드득' 하고 날아가고, 우연히 친한 친구 A를 만나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것들이 다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은 범주화된다.⁷⁾ '비둘기는 사람이 다가가면 날아간다'라든지 '친한 친구 A는 수다스럽다' 등이 그러한 범주화의 예시이자 의미기억의 예시이다. 이는 인간의 범주화, 추상화 능력에서 비롯한다. 요컨대 의미기억은 사건을 일반화, 추상화, 총칭화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의미기억은 다시 언어의 형식으로 인출되어 다른 이의 정보 체계에 더해지게 된다.

요컨대, 일화기억을 불러올 때는 언제, 어디서라는 표찰이 함께 따라온다. 그리고 일화기억 속에서 불러 오려고 하는 그 사건이 연쇄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화기억의 특성들은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인과적 힘(causal efficacy)을 가진다고 설명한 사건의미론의 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Asher 1993: 58).

6) 공간 정보는 해마에서 생성하고 시간 정보는 전두엽에서 생성하여 해당 사건에 꼬리표로 달아준다. 나이가 들어 기억이 쇠퇴하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그랬는지, 특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가물가물해지는 것은 이러한 출처기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7) 반드시 반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복이 범주화를 초래하지만, 한 번 겪은 사건도 인간은 범주화하여 의미기억으로 넘겨 버리기도 한다.

의미기억은 '언제, 어디서'라는 표찰이 중요하지 않다.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지도 않고 따라서 인과적 힘을 가지지도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보의 '내용' 그 자체이다.⁸⁾ 이는 명제라고도 할 수 있고, 참일 경우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혹은 이를 '지식', '정보' 등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3. 비완정보절과 사건, 사건통합

내가 겪은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고 해 보자. '나'는 이를 문장의 형태로 재현할 수 있다.

(5) (내가 틀림없이 이 눈으로 봤어!) 단우가 연우의 어깨를 툭 쳤어.

그런데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선후행 관계라든지 인과 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화자가 회상하여 일화기억 공간에서 같이 불러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호화가 일어날 수 있다.

(6) ㄱ. 단우가 연우의 어깨를 툭 쳐서 연우가 아파했어.

ㄴ. 내가 단우가 연우 어깨를 툭 치는 거 봤지.

ㄷ. 단우가 연우 어깨를 툭 친 것이 연우를 화나게 했어.

'단우가 연우의 어깨를 툭 친 사건'과 (6ㄱ) '연우가 아파한 사건', (6ㄴ) '내가 그 장면을 본 사건', (6ㄷ) '그것이 연우를 화나게 한 사건'은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다. 문법적 측면에서는 모문과 내포절의 결합이지만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시공간적 통합(spatio-temporal integration)이 일어난 것이다(Givón 1993). 그렇기에 (6ㄱ)의 '쳐서'는 '쳤어서'가 불가능하다. 모문과 내포절이 각각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시공간적으로 통합되어 있기에 내포절의 시제는 모문에 기대어 해석되기 때문이다. (6ㄴ) 역시 '치는 거'가 '친 거'가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공간적 통합의 정도는 문법적으로는 정형성(finiteness)과 연결된다. 정형성(finiteness)은 어떤 절이 바로 상위의 절에 통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는 체계적인 문법적 수단이다(Givón 1990: 853). 다시 말해 어떤 내포절이 있고 그 내포절이 비정형적이라면 해당 절은 모문에 통사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의존적이다(통합되어 있다). Givón(1993: 27)에 따르면 모문과 보절의 사건 통합의 정도는 보절의 동사가 명사에 가까울수록 높아진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절의 동사가 동명사라면 모문과의 사건 통합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비완정보절은 비정형적(non-finite)이다. 이는 모문에 통사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의존적이라는 말인데, 비완정보절이 나타내는 사건과 모문의 사건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엮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자는 이를 '엮여 있는 그대로' 불러낸 것이다.

8) 의미기억에도 시공간적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콜럼버스는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했다'라는 정보는 시간 정보를 포함한다. 그렇다고 이것을 사건기억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는 지식의 차원의 의미기억이지 사건기억이 아니다. 사건기억은 개인의 일상에서 '겪은 것'들로 이루어진다. 거꾸로 겪은 것들도 얼마든지 의미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다. '1992년 생일에 집에서 어머니가 나에게 미역국을 끓여줬다는 것'이 시공간 정보를 그대로 담은 채로 의미기억이 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절이 정형적일수록 모문과는 시공간적으로 엮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시제 표지, 양태 표지, 종결 어미(화행 표지) 등이 붙었다는 말은 정형적이라는 말이고, 이 정형적인 절은 모문과 시공간적으로 엮이지 않는다.

비완형보절이 나타내는 사건은 모문이 나타내는 사건과 시공간적으로 통합되어 해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어의 비완형보절을 이끄는 '-ㄴ', '-ㄹ'이 동명사형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이기문 1972, 김무봉 1988, 양정호 2001). 최동주(1996: 173-176)에서는 '-ㄴ/-ㄹ'이 이끄는 절이 중세 한국어 이전 시기에 관형사절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절로 쓰이기도 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이 말은 '-ㄴ/-ㄹ'이 동명사형 어미였다가 중세 국어 시기를 지나면서 관형사형 어미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ㄱ. [八姝女の 기론] 찻므리 모자를씨(월인석보 8:92)
 ㄴ. [釋迦人 本來 세산] 誓願에 곧 ㅎ샤미라(법화경 1:225)
- (8) ㄱ. 德이여 福이라 호닐 나으라 오소이다(악학궤범, 동동)
 ㄴ. 威化振旅 ㅎ시느로 輿望이 다 몬즈브나(용비어천가 11)

(7)에서는 동명사의 속격 주어가 '八姝女の'와 '釋迦人'로 나타나고 있고 (8)에서는 '호닐'과 'ㅎ신'에 조사 '-을'과 '-으'가 붙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절의 동사가 비정형적인 동명사형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임흥빈(1982: 57) 역시 '-ㄴ/-ㄹ'을 동명사 어미로 보고 중세 한국어의 관형 구성이 'NP + NP' 구성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Shibatani(2009, 2014)는 관계절을 명사절로 본다.

- (9) ㄱ. [a [[cotton] N [shirt] N] N'] NP (Shibatani 2014)
 ㄴ. gold watch, songbird (Shibatani 2009)

한국어에서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듯이 '고양이 밥'이나 '맥주 안주'와 같은 구성에서 선행 명사는 후행 명사를 수식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Shibatani 2009: 170 참조). Shibatani(2007, 2014)의 주장은 우리가 그동안 관계절로 파악했던 것들이 원래는 명사절이라는 것이고, 이 명사절들의 기능은 '事象体言化(event nominalization)'라는 것이다. 이는 Shibatani만의 주장은 아니다. Comrie & Thomson(2007: 378-389)에서도 명사화절이 관계절로 기능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 때문에 어떤 언어들에서는 명사화절과 관계절을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비완형보절을 이끄는 '-ㄴ', '-ㄹ'은 본래 동명사형 어미였다. 공식적으로는 관형사절을 이끄는 기능핵으로 파악되지만 말이다. Yap & Grunow-Hårsta(2011: 29-30)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사절과 관계절의 상관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 (10) ㄱ. [VP n] N → VP RELn N
 ㄴ. lexical noun(stage1) → light noun(stage2) → Nominalizer(stage3) → Relativizer(stage4)

- ㄷ. 오늘도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속상하기 그지없다.
- 오늘도 나에게 화를 낸다는 사실이 속상하기 그지없다.

(13)의 예들에서 밑줄 친 부분은 비완형보절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완형보절로 바꾸고 핵어명사를 '사실'로 바꾼다고 해도 문장은 같은 의미로 성립한다. (13)의 문장들에서 밑줄 친 부분들은 본래 완형보절로 부호화해야 하는 사실기억의 정보들이다. 그런데 비완형보절로 나타났고 우리의 문법은 이를 어떤 맥락에서는 허용한다. (11)에서 보듯이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⁹⁾ 다시 말해 비완형보절은 사건을 표상하고 맥락에 따라 사실을 표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완형보절은 오직 사실(명제)만을 표상한다.

김태인(2019: §5.1)에서는 어떤 명사화 구문이 어떤 의미 층위(사건, 명제, 사실)로 해석될지의 키는 해당 명사화 구문을 취하는 모문의 서술어가 쥐고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이를 어떤 논항을, 해당 논항을 취하는 함수가 요구하는 유형으로 전환시키는 의미 기제인 유형 강제(type coercion) 현상으로 파악한 것이다(Pustejovsky 1995: 111).¹⁰⁾ 다음 예를 보자.

- (14) ㄱ. 냉면을 시작했다.
- ㄴ. 김 과장을 믿고 있다.
- ㄷ. 그 소설이 참 슬프다.

(14ㄱ)에서 '시작하다'라는 서술어는 '냉면'을 사건 타입이 되도록 강요한다. 곧 '냉면 먹기' 정도로 해석되게 하는 것이다. (14ㄴ)의 '믿다'라는 서술어는 '김 과장'을 '김 과장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내용'으로 해석되도록 강요한다. (14ㄷ)의 '슬프다'는 '소설'이 물리적 실체인 book copy가 아니라 text, content로 해석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강요 현상은 명사화 구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3)에서의 서술어는 내포절로 취하는 '영조 때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정탐한 거'나 '이러한 과격한 표현이 등장한 것'이나 '오늘도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사건 유형이 아니라 사실 유형으로 해석되도록 강요한다.

이처럼 비완형보절의 해석은 서술어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Zucchi(1993: 176)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4) 서술어마다 의미 선택 자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 어떤 서술어는 사건 실체는 취하지만 명제 실체는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형 강제를 비롯하여 (14)와 같은 정리는 사후적 기술에 불과하다. 곧 왜 사건을 나타내는 비완형보절이 어떤 맥락에서 사실을 나타내기도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설명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9) 쉽게 말해 '나는 어제 단우가 영화관에 간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10) 유형 강제 기제는 형식미론을 추구하는 일련의 학자들이 합성성의 원리를 고수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Pustejovsky(1995: 106)에서 제시하는 'John and every woman arrived'라는 예문을 보자. 형식미론적 관점에서 고유 명사인 John은 <e> 유형이고, every woman은 <<e, t>, t> 유형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합성성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John의 의미 유형을 every woman과 동일한 <<e, t>, t> 유형으로 강제로 상승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맥락에 따라 해당 명사구가 지시하는 실체의 지위를 변환시키는 것이 유형 강제라고 하겠다.

해당 실체가 어떤 해석을 갖는지 해당 실체를 논항으로 취하는 서술어를 잘 봐야 한다는 관찰은 이러한 현상들이 환유(metonymy)인 것을 방증한다. 환유는 동일한 이상적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 ICM) 내에서 매체라는 한 개념적 실체가 목표라는 다른 개념적 실체에 정신적 접촉을 제공하는 인지 과정이다(Radden & Kövecses 1999: 21). 쉽게 말해 환유는 (그리스어 onoma에 어원을 둔 '-nymy') 이름을 바꿔('meta-') 버리는 현상이다. A의 이름을 B로 바꾼다고 할 때 B는 화자는 아무 데서나 이름을 찾아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상적 인지모형 내에서 찾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15) ㄱ. 오징어가 누구세요? / 제가 오징어입니다.

ㄴ. 나 이번에 폭스바겐 샀어.

(15ㄱ)의 '오징어'는 오징어볶음덮밥을 주문한 사람을 의미하고 (15ㄴ)의 '폭스바겐'은 회사가 아니라 폭스바겐에서 나온 차량을 의미한다. 이처럼 맥락, 서술어 등은 해당 실체의 해석을 좌우한다.

이러한 이름 바꾸기에는 해당 실체의 존재 유형을 바꿔 버리는 일도 포함된다. 이를 다면어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면어(multi-facted words)는 "그 의의가 둘에서 네 개 정도의 국면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국면은 한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각상 하나의 '게슈탈트(gestalt)'를 형성하는 단위이다"(임지룡 1996: 238). 다면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16) ㄱ. 책을 읽다가 던져 버렸다.

ㄴ. 이 식당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맛이 상당하고, 친절하기까지 하다.

(16ㄱ)에서 '읽다' 서술어가 취하는 책은 text를 의미하고 '던지다' 서술어가 취하는 책은 book copy, tome을 의미한다. (16ㄴ)에서 3층으로 된 식당은 건물로서의 식당이고, 맛이 상당한 식당은 식당의 음식을 의미하며, 친절한 것은 식당의 종업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면들이 하나로 모이면 각각 책, 식당의 하나의 게슈탈트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면어적 양상은 사건에도 나타날 수 있다. 사건은 다양한 국면이 합쳐져 게슈탈트를 형성한다. 사건의 행위자, 도구, 지속시간, 과정, 결과, 원인, 도구, 시간, 장소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예는 김동환 2019: 8장 참조). Langacker(1991: 32)에서도 다양한 국면들이 모여 한 사건을 구체화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7) ㄱ. Harvey's taunting of the bear was merciless.

ㄴ. Harvey's taunting of the bear lasted three hours.

ㄷ. Harvey's taunting of the bear was ill-advised.

ㄹ. Harvey's taunting of the bear came as a big surprise.

그의 설명에 따르면 Harvey's taunting of the bear는 (17ㄱ)에서는 해당 사건의 방식(manner)으로, (17ㄴ)에서는 지속시간으로, (17ㄷ)에서는 자질로, (17ㄹ)에서는 사실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사건을 한 실체로 볼 때 사건은 여러 국면을 가지고, 이 국면 가운데에는

해당 사건이 사실기억으로 승격된 사실 국면도 있다. 하지만 사실(fact) 실체에는 사건과 관련된 인과성이나 지속시간, 장소, 시간과 같은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건을 나타내는 비완형보절이 문맥에 따라 사실로 해석되는 것은 다면어적 양상인 것이다.

김동환(2019), 환유와 인지, 한국문화사.
 김무봉(1988), 중세국어의 동명사 연구, 《동악어문학》 23, 동악어문학회, 1-32.
 김태인(2019),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기심(1973),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탑출판사.
 문숙영(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계절의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5, 개신어문학
 회, 31-68.
 박문호(2013), 그림으로 읽는 뇌 과학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양정호(2001), 중세국어 동명사의 선어말어미 '-오-'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
 문.
 이정모 외(2009), 인지심리학, 학지사.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 한국언어연구회, 229-261.
 임홍빈(1982), 동명사 구성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백영 정병욱 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국문화
 사, 73-86.
 장경희(1987), 국어 完形補節의 해석, 《국어학》 16, 국어학회, 487-519.
 최동주(1996), 중세국어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I(중세국어)》, 152-209, 국립국어
 연구원.

Asher, N.(1993), Reference to Abstract Objects in Discourse, Dordrecht: Kluwer.
 Atkinson, R. C. & Shiffrin, R. M.(1968), Human Memory: A proposed system and its control
 processes, In W. K. Spence & J. T. Spence (Eds.),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Vol. 2, pp. 89-195). New York:
 Academic Press.
 Baddeley, A.(1992), Working Memory, Science, 255, 556-559.
 Comrie, B. & Thomson, S. A.(1985/2007), Lexical Nominalization, In T.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III: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vón, T.(1990),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2. Amsterdam: John
 Benjamins.
 Givón, T.(1993), English Grammar: A Funtional-Based Introduction, Vol. 2, Amsterdam:
 Benjamins.
 Dixon, R. M. W.(2010), Basic Linguistic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angacker,W.(1985), Observations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Langacker, W.(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2: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Lyons, J.(1977), Seman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강범모 역(2011), 의미
 론, 한국문화사]
 Peterson, P. L.(1997), Fact, Proposition, Event, Dordrecht: Springer-Science+Business Media,
 B.V. +
 Pustejovsky, J.(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ss. : MIT Press.
 Radden & Kövecses(1999), Toward a theory of metonymy, In K-U. Panther & G. Radden
 (Eds.), Metonymy in Language and thought, 17-59,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Shibatani, M.(1990), The Language of Jap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ibatani, M.(2009), Elements of complex structures, where recursion isn't: The case of

- relativization. In T. Givón and M. Shibatani (eds.), *Syntactic Complexity: Diachrony, Acquisition, Neuro-cognition, Evolu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Squire, L. R.(1993), The organization of declarative and nondeclarative memory, In T. Ono, L. R. Squire, M. E. Raichle, D. I. Perrett, & M. Fukuda (eds.), *Brain mechanism of perception and memory: From neuron to behavior*, pp. 219-22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quire, L. R.(2004), Memory systems of the brain: A brief history and current perspective, *Neurobiology of Learning and Memory* 82, pp. 171-177.
- Squire, L. R. & Kandel, E. R.(2009), *Memory: From Mind to Molecules*, Roberts and Company Publishers [전대호 역(2016), *기억의 비밀*, 북하우스 퍼블리셔스]
- Tulving E.(1972), Episodic and semantic memory, In E. Tulving, W. Donaldson (eds.), *Organization of Memory*, pp. 381–403. New York: Academic
- Tulving E.(1983), *Elements of Episodic Memory*. Oxford: Clarendon.
- Tulving E.(1993), What Is Episodic Memor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2, No. 3 (Jun., 1993), pp. 67-70
- Vendler, Z.(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New York : Cornell Univ. Press.
- Yap, Foong ha & Grunow-Hårsta, Karen(2011), Nominalization strategies in Asian languages, In F. H. Yap, k. Grunow-Hårsta, J. Wrona (eds.), *Nominalization in Asian language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 Zucchi, A.(1993), *The Language of Propositions and Event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